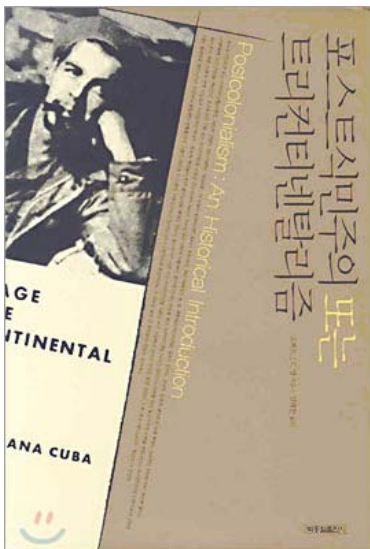




■ 로버트 J. C. 영.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김택현 옮김. 박종철출판사. 2005)

우 석 균



라스 카사스, 마르티, 마리아테기, 카스트로, 체 게바라, 갈레아노가 빛을 발하고 있고, 멕시코혁명, 쿠바혁명, 종속이론의 역사적 역할을 되짚어보고 있다. 그러나 혁명을 낭만적으로 예찬하거나 라틴아메리카 구(舊)좌파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책은 결코 아니다. 행동가로서의 체 게바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파헤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냉철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책의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화두인 열대주의(tropicalism), 문화 횡단, 캘리번(Caliban)과 식민주의, 혼성성(hybridity)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 이론가들인 오르티스, 슈와르츠, 라마, 페르난데스 레타마

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의미심장한 이론들과 이를 매끄럽게 빚어낸 지성들을 소개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하면 그저 ‘혁명의 땅’ 혹은 ‘설익은 대륙’이라는 편견을 지닌 이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있다. 라틴아메리카 전공자들 외에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담겨 있는 이 책이 라틴아메리카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돋보인다. 원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포스트식민주의 논의를 폭넓게 다루면서 라틴아메리카를 논의의 중요한 축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단지 필자가 라틴아메리카 전공자라서 그저 반가움에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학계는 영어권이나 프랑스어권의 사례, 이에 의거해 생산된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을 주로 수용해 왔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국내 포스트식민주의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는 촉매제가 될 만하다. 가령,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페루의 사회주의자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만 해도 국내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그람시와 동시대에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한 인물임에도 말이다. 체 게바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지금의 세계화 국면에서는 그저 낡은 이념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반제국주의의 주창자라는 것이 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 게바라가 오늘날의 포스트식민주의의 이론적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J. C. 영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1990년 『백인의 신화들』(White Mythologies)을 발간하면서 주요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가로 부상했다. 트리컨티넨탈리즘(tricontinentalism)은 1966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제1회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민중연대기구 회의와 그 직후부터 발간된

잡지인 《트리컨티넨탈》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저자가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로는 우선 ‘제3세계’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사실 ‘제3세계’는 제1세계, 제2세계보다 열등한 세계라는 선입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서구가 명명권력을 휘두른 사례라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로버트 J. C. 영은 차라리 ‘트리컨티넨탈’, ‘트리컨티넨탈리즘’이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하지만 이 용어를 택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1966년의 트리컨티넨탈 회의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 대륙 민중의 전 지구적 동맹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점을 저자가 높이 산 것이다. 전 지구적 동맹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현재의 세계정세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저자의 비판은 신자유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향하고 있다. “역사는 아직 포스트-제국의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면서 포스트식민주의가 인류의 오랜 죄악을 해소해 줄 침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해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서구 근대성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려고 노력한 트리컨티넨탈 포스트식민주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책은 또한 트리컨티넨탈 이론가들 덕분에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공산주의 선언』의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나 전 지구적인 탈식민화를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강령을 제안한 1920년 레닌의 코민테른을 포스트식민주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스란히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비서구 지역에 전파되어 현지 조건에 맞는 사회주의로 변형되어 포스트식민적 실천을 행하고 있는 트리컨티

넨탈 마르크스주의 담론을 높이 살 뿐이다. 마리아테기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가 사회주의자이면서도 서구 마르크스주의 담론에 내재된 유럽중심주의를 거부하고 비판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로버트 J. C. 영이 트리컨티넨탈 마르크스주의 담론에 대해 맹목적인 찬사를 보내지는 않다. 이는 종속이론에 대한 저자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종속이론이 포스트식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고, 쿠바혁명과 체 게바라가 없었다면 아민과 월러스틴도 없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종속이론이 지나치게 제국주의의 정치적·경제적 지배 형태만 주목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다. 종속이론이 ‘지배의 문화적 차원’을 보지 못한 데 따른 비판이다. 그래서 저자는 포스트식민주의가 “사회과학에 기초를 둔 정치 담론과 인문학에 기초를 둔 문화주의 담론이라는 두 담론이 능동적으로 한데 모이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이론과 그 연구자들이 폭넓게 언급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저서로는 『잉카 in 안데스』 등이 있다.
